

# - 지노그 -

게임계의 지존 세가 - 리뷰

장르: 슈팅 용량: 4M 제작사: 메사이야 발매시기: 1991

리뷰 작성: nungcool [nungcool84@naver.com]

[등록: 2000년 09월 03일]



로고등잔신부터 간지가 짙찰 흐릅니다.



게임제작은 메사이야가 하였고 배급은 NCS가 맡아주었습니다.

1991년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된 메사이야의 슈팅 게임입니다.  
당시에 4메가면 작은 용량은 아니고 일반적인 용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속된말로 더러운;;)가 주된 특징이며, 1스테이지의 동굴 화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효과는 당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여느 슈팅게임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의 부실(거의 없다고 보는 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이 매우 섬세하고 랑그릿사의 음악에 참여했던 분이 지노그의 음악도 맡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인지 음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메사이야의 게임이 늘 그러하듯, 전체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한 정성을 들인 표가 납니다.  
물론 게임의 재미와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장인정신은 이 게임을 수작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리뷰의 스샷은 당연히 에뮬레이터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TV화면은 잘 안찍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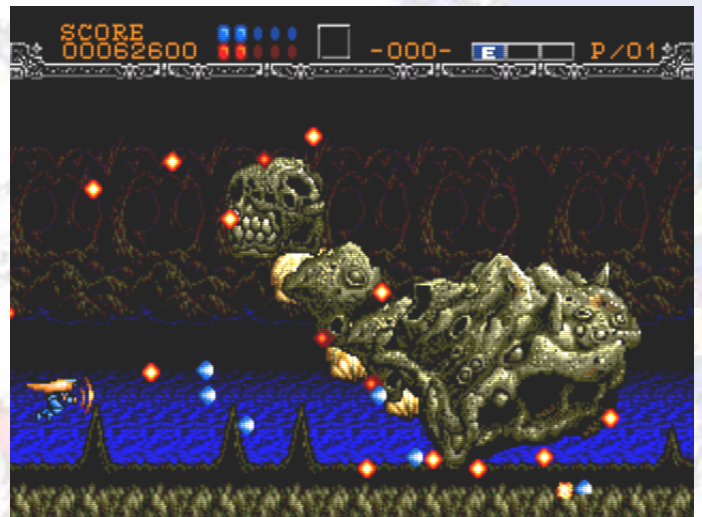
메가드라이브용 카트리지의 모습. 운 좋게 상태가 좋은 것을 구입했네요^^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무수한 총알과 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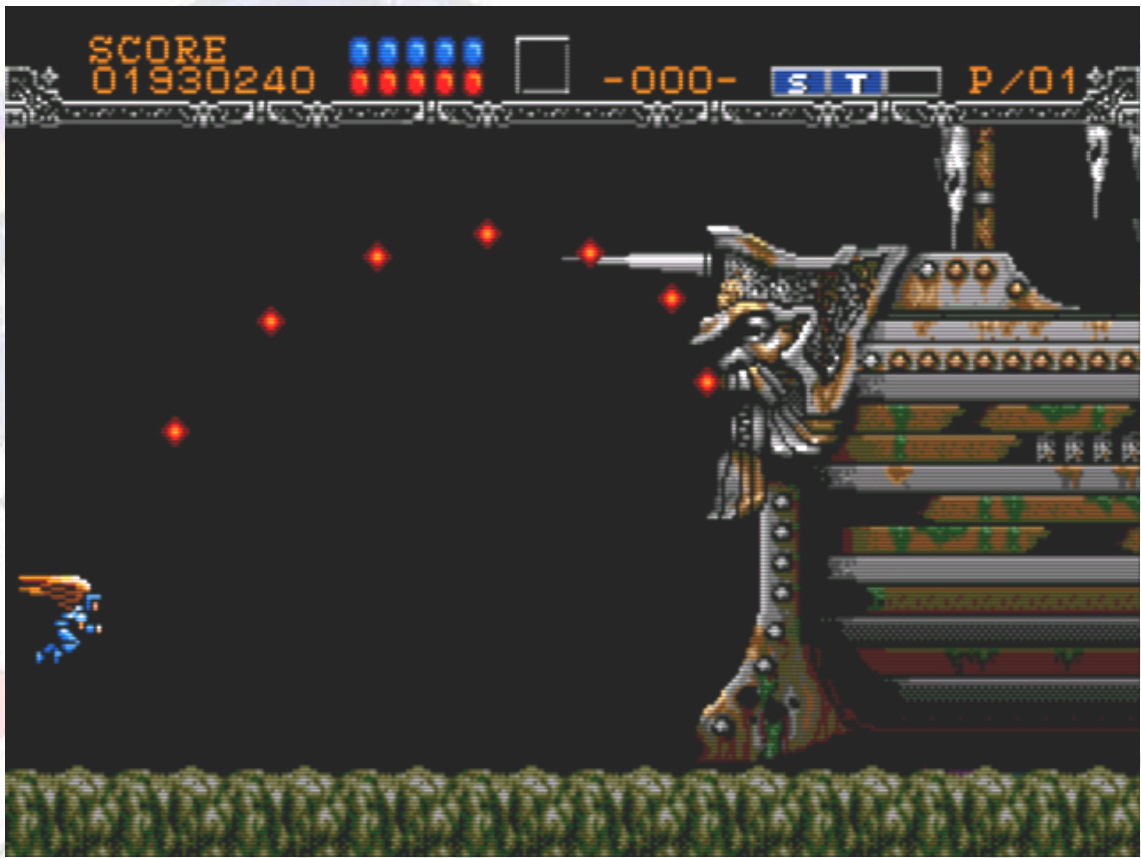
보스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주인공을 일부러 작게 만든거 같군요.



1스테이지의 보스입니다. 사이즈는 크지만 조금 불쌍해 보이네요.;



2스테이지의 중간보스 소리껍질 같네요. 뭔가를 토해내는 효과음이 징그럽습니다.



2스테이지의 보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요.



이곳까진 무난하게 플레이 할 수 있지만, 다음의 3스테이지부터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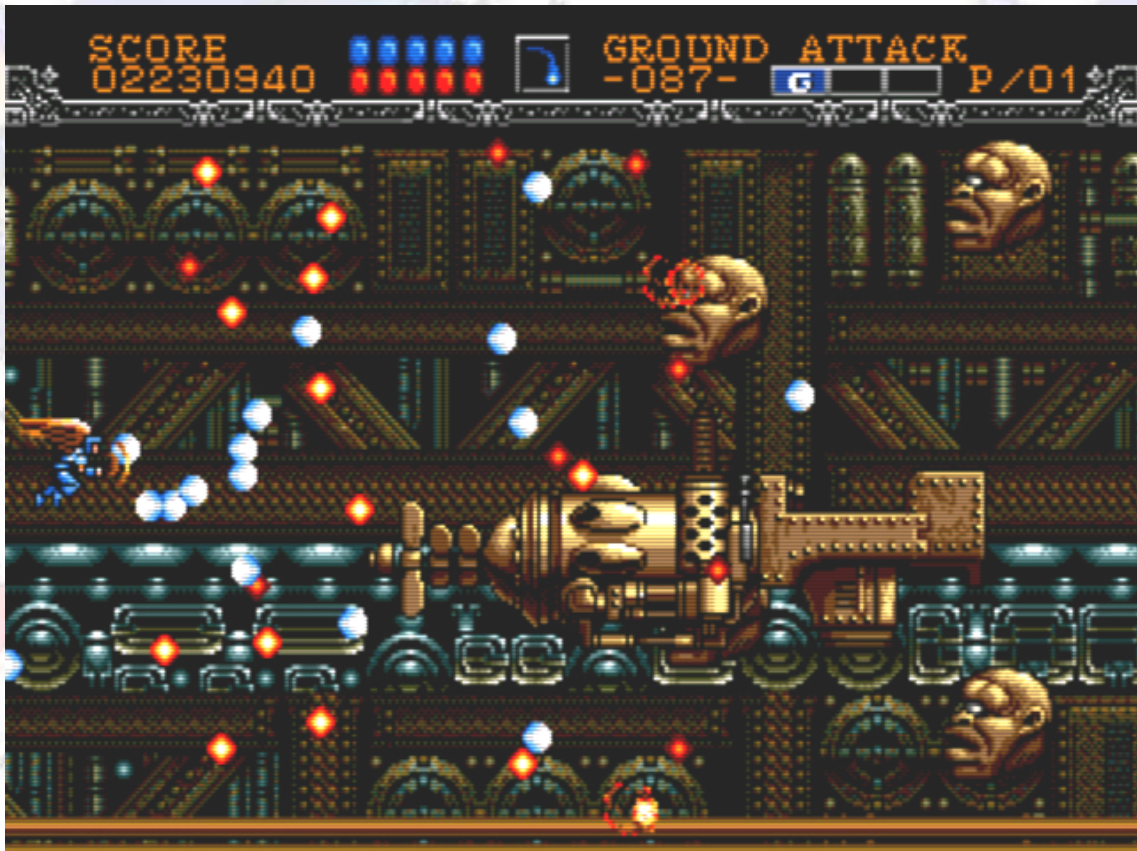
3스테이지 중간보스

화면밖으로 나갔다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져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미리 암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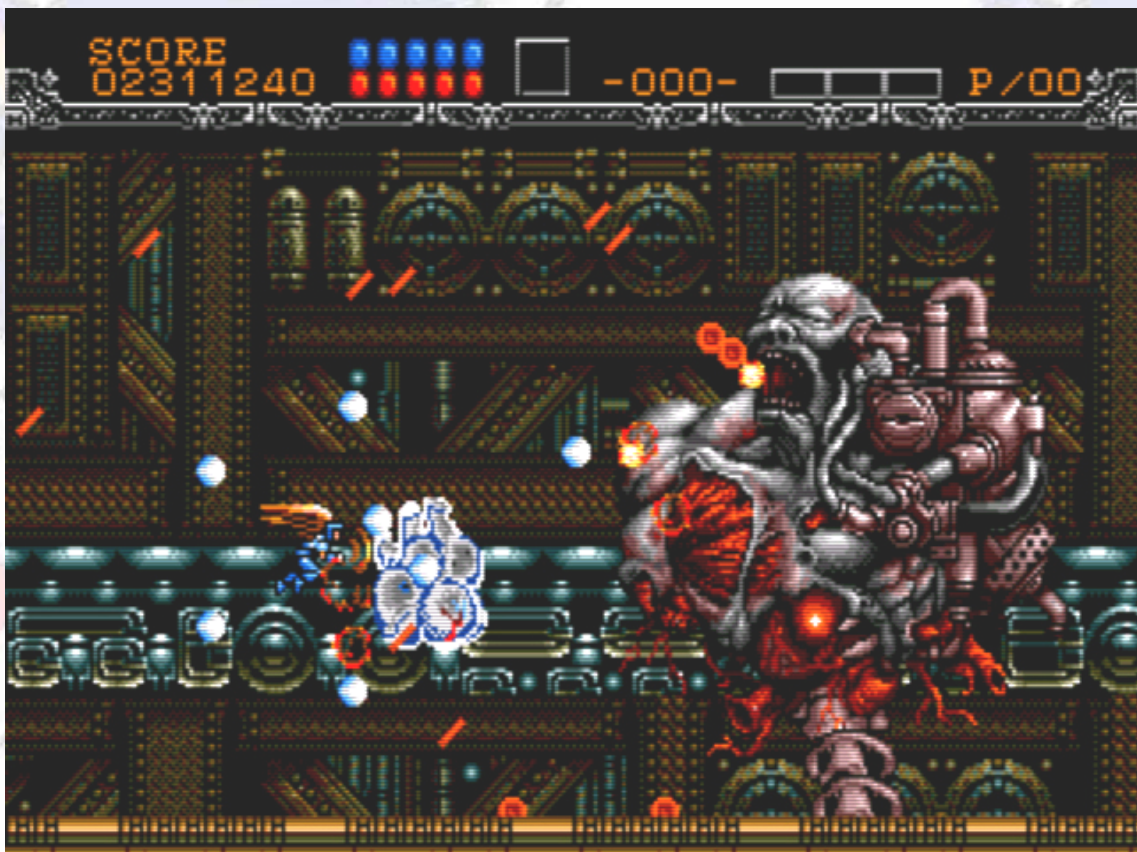


3스테이지 보스

담배로 태워 코로 연기를 내뿜는 공격을 하는 특이한 보스입니다.  
저먼지는 총알과 섞여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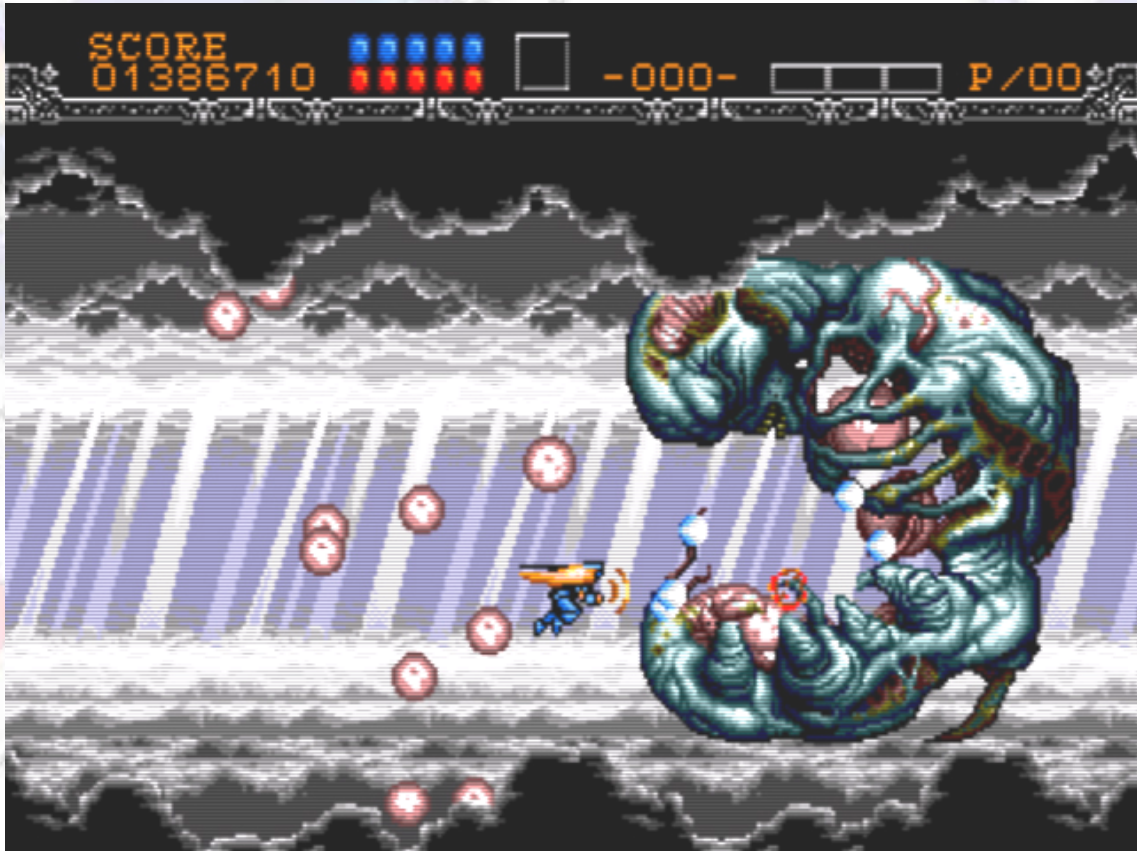


4스테이지의 중간보스인데, 큰 특징은 없어 보이네요.



4스테이지 보스

심장이 포인트지만 몸체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알파벳을 3개 모으면 주위에 4명의 천사가 뱅글뱅글 도는 마법이 있는데요. 이 마법은 몸체를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이 뭔지 생각이 안나네요.;;



마지막 스테이지의 보스입니다.

이 녀석은 공격 포인트가 아주 애매한데 몸체 가까이 다가가서 중앙을 공격하면 공격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맷집도 좋아서 클리어 하느라 애 먹었습니다-. -;

**- THE END -**